

박태환 “김종 무서웠지만 리우 가고 싶었다”

■정권에 시달린 스포츠 스타들

기업 스폰서·교수직으로 희유

늘품제조 불참 김연아 ‘미운털’

손연재, 잇단 의혹 SNS 못매

‘마린보이’ 박태환(27)이 김종(55)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올림픽 포기 외압 논란에 대해 “당시엔 (김 전 차관이)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무서웠지만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박태환은 21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차관으로부터) 기업 후원이나 대학 교수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태환 측은 김 전 차관이 박태환에



박태환이 21일 오전 일본 도쿄 시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터뷰하며 김종 전 차관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 박태환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나라당 의원 시절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

하지 않은 이후 미운털이 박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태환 측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기업 스폰서) 그런 건 내가 약속해줄 수 있다”면서 “단국대학교 교수해야 될 것 아니냐. 교수가 돼야 뭐가 할 수 있어”라며 박태환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 박태환이 외압 논란 후 직접 언론 앞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피겨 김연아(26)가 늘품제조 시연회 참석을 거절한 뒤 2015년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스포츠영웅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팬들이 이 행사에 참석한 손연재에게 비난을 보내고 있다.

21일 현재 손연재의 인스타그램에는 비난 댓글이 달리면서 최근 게시물에는 1400개를 넘겼다. 손연재의 소속사인 갤럭시SM 홈페이지는 하루 트래픽 한도를 초과해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손연재의 인스타그램과 인터넷 커뮤니티

티 등에는 손연재가 지난 2월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이가 있다. 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손연재의 어머니가 대회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AD카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다는 의혹, 손연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에 연루된 차음병원에 다녔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갤럭시SM 관계자는 늘품제조 시연회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민에게 좋은 체조를 알린다는 취지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갤럭시SM은 차음병원 진료에 대해 “고질적인 건강 문제로 국내 체류 시 차음병원뿐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에 다녔다”고 밝혔다.

손연재가 차음병원에 땀을 흘린 데 대해서는 “아시아선수권 3연패 달성 후 지인들에게 일괄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연합뉴스

양림동 브랜드 디자인 공개…관광 상품 활용

광주 남구는 근대역사문화마을인 양림동을 상징하는 BI(Brand Identity) 디자인을 개발했다.

21일 공개된 BI디자인은 ‘양림’의 첫 번째 자음 ‘ㅇ’ 위에 남구를 상징하는 녹색·청색·청록색으로 기와지붕 이미지를 배치해 인장처럼 활용했다.

아래쪽에는 ‘시간의 골목에서 예술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양림동 거리마다 스머튼 맛과 역사를 담아냈다. 남구는 BI디자인을 활용해 양림동 골목길 여행에 나선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커피·빵·떡·쿠기·분식 등 보편적으로 즐겨 먹고, 마을 이야기를 입힐 수 있는 메뉴에 BI디자인을 접목한다는 구상



이다.

또 양림동 곳곳의 공방에서 만드는 공예품에 BI디자인을 시각적인 브랜드로 사용할 방침이다. 양림동을 상징하는 호랑가시나무와 근대건축물을 상징하는 기념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28일 강행

장휘국 교육감 “용납 못해”

거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에도 교육부가 결국 예정대로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말했다.

웹사이트 공개와 함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브리핑 형식으로 현장검토본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이때 편찬기준과 집필진 47명 명단도 함께 공개되지만, 편찬심의위원 16명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다음에 공개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은 약 한달간 이뤄진다. 의견을 내려면 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 제출된 의견은 공개되지 않으며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이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

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교육부 내부에서도 국정과 추진이 보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청와대가 그간의 수세적 태도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최근 돌아서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결국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국민의 5%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누가 집필하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만들겠다는 데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며 “국정교과서는 당장 폐기해야 하고 강력한 대응방식을 내세라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장성군, 전남 귀농·귀촌 시책 최우수상

정부, 청년 귀농 1만 가구 육성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5년 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

는 농촌’을 목표로 5년 단위의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장성군의 귀농·귀촌 시책 및 집행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21일 “시·군의 귀농인 유치 실적, 전담부서 운영, 박람회 참가 및 협의회 운영활동, 예산 확보,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 7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장성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장성군, 우수상은 고흥군·장흥군, 장려상은 강진군·영광군·진도군이 각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오늘 YS 서거 1주기

“박근혜는 칠푼이” 악연 회자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이 2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탄핵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연이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빈소를 찾아 7분 만에 자리를 뒀다. 또 방명록에 글을 남기거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당시 빈소를 찾은 많은 인사들이 고인을 높게 평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1998년 정계 입문 후 김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놓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자,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등을 차지한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꼴찌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2012년 7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토끼(김문수)가 사자(박근혜)를 잡는 격”이라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사자가 아니다, 아주 칠푼이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정관계 인사, 추모객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서거한 뒤, 26일 국가장으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2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17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행복온도탑 제막식’에서 윤정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풍선을 날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금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세요…연말 나눔캠페인 시작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를 높여주세요.” ‘사랑의 열매’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을 위한 ‘희망2017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오후 1시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를 시작으로 72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광주모금회는 내년 1월31일까지 모두 42억50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모금액(41억8600만원)보다 1.5% 증가한 액수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4250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며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 첫날 모두 7억8000만원이 모금돼 광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8.4

도까지 올라갔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날 오후 2시 목포시 옥암동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열었다.

전남모금회는 지난해 모금액(79억7000만원)보다 2.5% 늘어난 81억7000만원의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까지 광주는 5년 연속, 전남은 17년 연속 100도(목표액)를 넘었다. /김경민기자 kki@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